

## 대학생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하위집단에 따른 분리-개별화의 차이

이 시 은<sup>†</sup>

홍익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에 따라 어떠한 하위집단이 형성되는지를 탐색하고, 각 군집별로 분리-개별화(공생관계, 의존부정, 자기도취, 친구결속, 분리불안, 함입불안, 거부기대, 건강한 독립)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 33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Feningstein, Scheier, 그리고 Buss(1975)가 개발하고 김현진(2002)이 재번안한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와 Levine, Green, 그리고 Millon(1986)이 개발하고 장근영과 윤진(1992)이 번안한 분리-개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집분석 결과 4개의 군집(낮은 사적자의식/낮은 공적자의식 집단, 낮은 사적자의식/높은 공적자의식 집단, 높은 사적자의식/높은 공적자의식 집단, 높은 사적자의식/낮은 공적자의식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공생관계, 자기도취, 분리불안, 함입불안에서 각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분리-개별화와 관련된 자의식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분리-개별화,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sup>†</sup> 교신저자 : 이시은, 홍익대학교 강사, (130-861)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2동 153번지 벽산 아파트 102-404  
전화 : 011-419-4222, E-mail : hiverai@hanmail.net

분리-개별화는 후기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이다(Hauser & Greene, 1991; Levine, Green & Millon, 1986; Rice, Cole & Lapsley, 1990). 분리-개별화 과정은 주로 대상 관계 이론(Blos, 1979; Josselson, 1988)과 가족 체계 이론(Allison & Sabatelli, 1988; Gavazzi & Sabatelli, 1990)에서 다루어져 왔던 개념으로, 독립과 자율성은 지속적인 양육자와의 관계적 맥락 내에서 획득된다는 점에서 이론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즉, 청소년기의 개별화는 부모로부터 의존에서 벗어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가족과의 완전한 분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립성과 자기통제를 지속적인 상호관계의 맥락 내에서 획득하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 개별화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Josselson, 1988). 따라서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은 한 편으로는 융합과 합입, 다른 편으로는 완전한 분리와 고립이 되지 않으면서 분리와 관계성을 지속해서 변증법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Lapsley & Edgerton, 2002).

Mahler, Pine 그리고 Bergman (1975)은 영아는 생후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독특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데, 이를 영아의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생의 초기 3년 동안 유아와 어머니 간의 분리 경험을 ‘심리적 탄생(psychological birth)’이라고 명명하면서, 일차적 개별화를 통해 물리적인 독립성을 인식하게 되고 어머니의 존재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Blos(1979)는 유아기의 분리-개별화에 대한 Mahler의 대상관계 이론을 확장하여 유아기의 일차적 분리-개별화 경험과 청소년기의 이차적 분리-개별화 경

험을 구별하면서, 자아의 적응체계 형성을 청년기 발달의 주요 지표로 간주하고 청년기 발달을 이차적 개별화 과정(secondary individuation process)으로 설명하였다. 이차적 개별화는 청년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 가는 과정으로, 유아기 때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의식을 재조직하려는 시도이다. 즉, Blos는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는 내재화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것과 독특한 한 개인으로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족 체계 이론에서도 역시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해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가족 체계 이론에서는 정체감이란 ‘개별성’과 ‘관계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 환경 내에서 가장 잘 발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가족 내에서의 열린 의사소통(Grotevant & Cooper, 1985), 갈등의 표현과 해결(Perosa & Perosa, 1993), 결혼의 안정성, 분명한 경계, 세대 간 동맹의 부재(Anderson & Fleming, 1986; Fullinwider-Bush & Jacobwitz, 1993)는 청소년들이 성숙한 정체감을 달성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처럼 분리-개별화는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아를 분리시키고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려 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은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Rice, 1992), 분리될 때 느낄 수 있는 불안, 죄책감, 혹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Mattanah, Hancock & Brand, 2004).

청소년기의 개인은 부모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분리-개별화를 이룸으로써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게 되고, 비로소 성인기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특히 자율과 독립의 욕구가 증시

되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분리-개별화의 성공적인 획득은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조화진, 2004). 이와 같은 중요성에 의해 분리-개별화에 대한 연구들은 자아정체감(전희정, 1996; Frank, Pirsch & Wright, 1990; Perosa, Perosa & Tam, 1996), 애착(장휘숙, 2002; Lasley & Edgerton, 2002), 대학생 활 적응(조화진, 2004; 허지은, 2004; Rice, Col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진로(송영주, 2001;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이성 관계(전보영, 2005), 결혼 만족도(윤희정, 2004)와 같은 후기 청소년 및 성인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간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춰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 발달의 기본 전제가 되는 자의식과 분리-개별화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룬 연구는 없었으며, 분리-개별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자아정체감 혹은 자기개념의 명확성과 자의식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Campbell, Trapnell, Heins, Kartz, Lavalley, 그리고 Lehmann(1996)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의식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기개념명확성과 사적 자의식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공적 자의식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음을 밝혔다. Sneed와 Whitbourne(2003)은 정체감 형성의 과정을 정체감 동화(identity assimilation), 정체감 조절(identity accommodation), 정체감 조화(identity balance)의 세 가지 과정으로 분류하여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체감 동화는 자기반성(self-reflection)과 부적 상관이 있고, 정체감 조절은 내적상태인식(internal stateawareness)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자기반성(self-reflection) 및 공적 자의식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정체감 조화는 내적상태인

식(internal state awareness)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려가는 분리-개별화 과정은 자신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아정체감 혹은 명확한 자기개념을 형성하려면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식 혹은 관심이 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분리-개별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기는 형식적 조작능력의 발달과 함께 전 생애의 어떤 시기보다 ‘자기’의 발달이 중요시되는 시기로 내성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장휘숙, 2000). 따라서 개인의 자의식은 개인의 행동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써 대학생들의 자의식과 분리-개별화와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후기의 대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시키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 행동 등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자기초점화 주의(self focused attention)’라고 하는데(Ingram, 1990), 자기초점화 주의는 지금까지 심리치료 분야와 정신병리 연구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연구되어 왔다. 정신분석, 로저스 이론, 실존주의를 포함하여 많은 통찰치료들은 자신의 행동, 사고, 느낌의 의미와 동기를 숙고하는 성향으로 정의 되는 심리적 자각 수준(psychological-mindedness)을 심리치료의 도구이자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Hall, 1992; Trapnell & Campbell, 1999). 이처럼 자기 초점화 주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촉진시키며 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관

계를 바탕으로 자신과 주변을 탐색하며 정체감을 형성하고 상담자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하는 상담 장면에서의 내담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초점화 주의는 Duval과 Wicklund의 객관적 자기인식 이론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들은 의식적인 주의가 본질적으로 양향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의식은 자신에게 향하거나 외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식이 자기의 측면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객관적 자기인식이라 하고, 의식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환경의 어떤 측면에 향하는 것을 주관적 자기인식이라 하였다(정경래, 1998에서 재인용). Feningstein, Scheier 그리고 Buss(1975)는 Duval과 Wicklund가 주목한 자기자각(self-awareness)을 상황 변인이나 기질로 인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자기초점화 주의의 상태로 간주하고, 이와 구분하여 개인차를 반영하는 자기초점화 주의인 자의식(self-consciousness)을 제안하였다. 즉, 자의식은 자기초점화 주의 개념을 개인의 특성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상황적 요인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자각의 성향을 의미한다.

또한 Feningstein 등은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의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으로 태도,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아의 측면에 대해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개인의 경향을 말한다.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목하는 경향으로, 인상형성이나 개인의 외현적 행동방식, 예의 등으로 구성되며, 자기표현 등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

회적 불안은 주로 공적 자의식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인관계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불안해하고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적 자의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즉,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김현진, 한종철, 2004; 문경하, 2007; 허정훈, 2000).

사적 자의식은 정서 조절 과정 및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Scheier & Carver, 1977; Turner, Gilliland & Klein, 1981; Nasby, 1989), 자신의 태도와 행동 간에 일관성이 있고(Scheier, 1980), 더 효과적인 자기조절 양식을 가진다고(Mullen & Suls, 1982)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 사건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며, 우울과 같은 병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Pyszczynski & Greenberg, 1987; Ingram, 1990; Woody, 1996; Woody & Rodriguez, 2000). 반면 공적 자의식에 대해서는 사적 자의식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대인관계 및 대인행동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적 자의식은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며, MMPI 하위척도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우울 및 사회적 소외감 등 심리적 불편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재, 1997; 조아라, 김영미, 2000). 반면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거나 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eier, 1980). 또한 공적 자의식은 사교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공적 자의식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Scheier, Carver & Ickes, 1978).

지금까지 자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심리적 적응 및 건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왔으나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었다. 특히 국내 연구들은 자의식이 문화권에 따라 다른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보경, 2003; 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최정아, 1997). 또한 사회정체감 이론에서는 자기를 사적 자기, 공적 자기, 집단적 자기의 3가지 범주로 나누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회적 집단의 성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체감은 자기개념이나 자기평가에 관련된다고 한다. 독립적 자기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서구문화에서는 사적 자기가 중요하고, 상호의존적 자기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비서구권 문화에서는 공적 자기와 집단적 자기가 강조된다고 하며 문화에 따른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Brewer & Gardner, 1996; Luhtanen & Crocker, 1992).

이처럼 문화에 따른 자기관은 크게 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과 상호의존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으로 구분되어지는데(Markus & Kitayama, 1991), 서구 문화권에서 우세한 독립적 자기관은 타인과 분리된 독특성을 추구하는 개별성과 관련되며, 동양 문화권에서 우세한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타인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관계성과 관련이 된다. 하지만 개별성이나 관계성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발달하면 다른 특성이 소멸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성의 발달이 촉진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한다(Blatt & Shichman,

1983). 김동직(1999)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직교적인 2차원임을 밝힘으로써, 서로 독립적인 변인으로서 둘 다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Guisinger와 Blatt(1994)은 개별성과 관계성에 관한 변증법적 모델을 제시하며, 개별성과 관계성은 끊임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일생을 두고 변증법적으로 발달해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에 따른 자기관은 자의식 발달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건강한 분리-개별화는 개인적인 자기와 사회적인 자기의 조화로운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자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각각의 자의식 수준을 중앙치 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타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 각각의 자의식 요인이 타 변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김현진, 한종철, 2004; 이선주, 2008; 허정훈, 2000; Ben-Artzi & Hamburger, 2001-2002; Ghorbani, Watson, Krauss, Davison & Bing, 2004).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자의식 요인과 타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대학생 집단에서 이들이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 상에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문화권 내에서도 한 개인이 두 성향을 동시에 다양한 수준으로 지닐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중요한 심리적 과제인 분리-개별화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변인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요인의 수준에 따라 어

떠한 하위집단이 구성되며 이 하위집단들 간에 분리-개별화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의 자의식은 분리-개별화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가?
2. 대학생들은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을 구성하는가?
3.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에 따라 구성된 하위집단들은 분리-개별화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교직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총 33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150명(45%), 여학생은 183명(55%)이었다. 평균연령은 21.21세(표준편차 2.17)이며, 학년은 1학년은 57명(17.1%), 2학년은 146명(43.8%), 3학년은 67명(20.1%), 4학년은 62명(18.6%) 이었다.

### 측정 도구

####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

Fenigstein, Scheier, 그리고 Buss(1975)가 개발

한 것을 김은정(1993)이 번안하였고 김현진(2002)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의식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총 23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문항의 사적 자의식, 7문항의 공적 자의식, 6문항의 사회적 불안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나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제외한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으로 태도,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아의 측면에 대해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개인의 경향을 측정하고 있으며,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목하는 성향으로 인상형성이나 개인의 외현적 행동방식, 예의 등으로 구성되며 자기표현 등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을 제외한 전체 자의식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0이었고, 자의식의 하위척도인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69, .71 이었다.

#### 분리-개별화 척도

Levine, Green, 그리고 Millon(1986)이 개발하고 장근영과 윤진(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80문항의 5점 척도로 된 이 검사는 공생관계, 의존 부정, 자기도취, 친구결속, 분리불안, 함입불안, 거부기대, 건강한 독립의 여덟 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의 문항수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생관계는 7문항으로 강한 의존욕구와 이런 욕구에 대한 만족과 기대에 따른 긍정적

정서의 내용으로 공생단계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의존부정은 12문항으로 의존욕구에 대한 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생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방어 전략을 측정하고 있다. 자기도취는 15문항으로 자신의 능력,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도취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행기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친구결속은 6문항으로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가 강해진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분리불안은 14문항으로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생활해 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에 관한 내용이며 함입불안은 7문항으로 부모의 과도한 통제, 부호로 자신의 독립과 개별적 정체감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진다는 내용으로, 분리불안과 함입불안은 재접근기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거부기대는 12문항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불안을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독립은 7문항으로 분리-개별화 과정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독립의 총점은 낮을수록 나머지 7개의 하위영역의 총점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해석을 위해 '건강한 독립'의 하위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역산하였으므로, '건강한 독립'을 포함한 8개의 하위영역 모두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리-개별화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9였고, 분리-개별화의 하위척도인 공생관계, 의존부정, 자기도취, 친구결속, 분리불안, 함입불안, 거부기대, 건강한 독립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56, .84, .83, .64, .78, .77, .86, .52 이었다.

## 자료 분석

우선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이 분리-개별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적 자의식 요인과 공적 자의식 요인의 점수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구분하였다.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병합적 군집방법(agglomerative clustering)을 사용하였으며, 군집화 기준으로는 워드 연결 방법(Ward's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거리측정 방법(Measure Interval)은 제공한 유클리디안 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다. 군집 수는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로 설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로 묶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구분된 네 개 집단의 분리-개별화 수준을 일원변량분석(ANOVA)을 통하여 비교하고, Duncan을 실시하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 결 과

### 자의식과 분리-개별화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자의식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과 같다. 공적 자의식은 분리-개별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r=.217,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적 자의식은 분리-개별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사적 자의식은 건

표 1. 자의식과 분리-개별화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적 자의식	1											
2. 공적 자의식	.540***	1										
3. 자의식 총합	.846***	.905***	1									
4. 공생 관계	.080	.150**	.135*	1								
5. 의존 부정	-.047	-.014	-.032	.221***	1							
6. 자기 도취	.169**	.134*	.170**	.292***	.276***	1						
7. 친구 결속	.089	.014	.054	.138*	-.37***	.244***	1					
8. 분리 불안	.183**	.461***	.384***	.495***	.342***	.284***	.027	1				
9. 함입 불안	.090	.179**	.159**	.198***	.465***	.219***	-.121*	.500***	1			
10. 거부 기대	.054	.111*	.097	.240***	.814***	.217***	-.371***	.518***	.615***	1		
11. 건강한 독립	-.211***	-.109*	-.176**	-.022	.165**	-.177**	-.479***	.006	.062	.180**	1	
12. 분리-개별화 총합	.099	.217***	.187**	.602***	.698***	.537***	.008	.744***	.722***	.775***	.141*	1

\* p<.05, \*\* p<.01, \*\*\* p<.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 과정의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즉, '건강한 독립'을 포함한 8개의 하위영역 모두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강한 독립'은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한 독립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강한 독립과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공적 자의식은 분리불안과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에 따른 군집

대학생들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2개 군집에서는 군집 1이 200명(60.1%), 군집 2가 133명(39.9%)이었으며, 3개 군집에서는 군집 1이 49명(14.7%), 군집 2가 151명(45.3%), 군집 3이 133명(39.9%)으로 나타났다. 4개 군집의 경우는 군집 1이 49명(14.7%), 군집 2가 90명(27.0%), 군

집 3이 133명(39.9%), 군집 4가 61명(1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때가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개념적으로 잘 설명되어서 4개 군집을 사용하였다.

각 군집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표준점수(Z)로 변환하고 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점수들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로 설정되었다. 높고 낮음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군집 1은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 군집 2는 '낮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 군집 3은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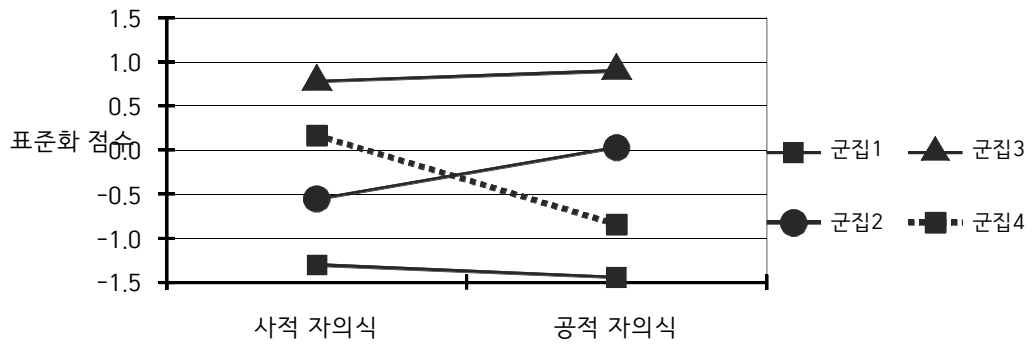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에 따른 군집

의식 집단', 군집 4는 '높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으로 각각 명명되었다.

군집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4개의 군집별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Duncan 사후검증으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적 자의식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152.324,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높은 사적자의

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사적 자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높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 낮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 순이었다. 공적 자의식 역시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350.573,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공적자의식의 경우에는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 높은 사

표 2. 각 군집별 사적자의식과 공적자의식의 차이 분석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n=49)	낮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n=90)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n=133)	높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n=61)	
	M	M	M	M	
	(SD)	(SD)	(SD)	(SD)	
사적 자의식	2.82a (.29)	3.17b (.23)	3.81d (.35)	3.52c (.30)	152.324***
공적 자의식	2.68a (.34)	3.56c (.21)	4.08d (.35)	3.04b (.19)	350.573***

\*\*\* $p<.001$

주. Duncan 사후검증:  $a<b<c<d$

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 순이었다. 따라서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모두 4개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군집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각 군집별 분리-개별화의 차이

각 군집에 따른 분리-개별화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Duncan 사후검증으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

표 3. 각 군집별 분리-개별화의 차이 분석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n=49)	낮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n=90)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n=133)	높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n=61)	
	M (SD)	M (SD)	M (SD)	M (SD)	
공생관계	2.59 <sup>a</sup> (.66)	2.72 <sup>ab</sup> (.64)	2.81 <sup>b</sup> (.61)	2.57 <sup>a</sup> (.65)	2.776*
의존부정	2.06 (.58)	2.12 (.63)	2.05 (.62)	2.13 (.67)	.402
자기도취	2.64 <sup>a</sup> (.51)	2.68 <sup>a</sup> (.51)	2.88 <sup>b</sup> (.56)	2.76 <sup>ab</sup> (.46)	3.823*
친구결속	3.60 (.58)	3.45 (.49)	3.55 (.62)	3.48 (.62)	.977
분리불안	2.35 <sup>a</sup> (.60)	2.69 <sup>b</sup> (.45)	2.92 <sup>c</sup> (.47)	2.37 <sup>a</sup> (.51)	24.880***
함입불안	2.20 <sup>a</sup> (.65)	2.45 <sup>b</sup> (.75)	2.53 <sup>b</sup> (.72)	2.35 <sup>ab</sup> (.68)	2.747*
거부기대	1.94 (.63)	2.16 (.68)	2.16 (.60)	2.05 (.67)	1.621
건강한 독립	2.54 (.57)	2.55 (.39)	2.39 (.46)	2.52 (.56)	2.456
분리개별화	2.49 <sup>a</sup> (.36)	2.60 <sup>bc</sup> (.34)	2.66 <sup>c</sup> (.28)	2.53 <sup>ab</sup> (.31)	4.420**

\*p<.05, \*\*p<.01, \*\*\* p<.001

주. Duncan 사후검증: a<b<c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 과정의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즉, ‘건강한 독립’을 포함한 8개의 하위영역 모두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강한 독립’은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한 독립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리-개별화는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4.420$ ,  $p<.01$ )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높은 사적 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분리-개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에서 분리-개별화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분리-개별화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공생관계는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2.776$ ,  $p<.05$ )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은 공생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과 높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공생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도취는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3.823$ ,  $p<.05$ )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자기도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과 낮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자기도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리불안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24.880$ ,  $p<.001$ )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분리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과 높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은 분리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입불안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2.747$ ,  $p<.05$ )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과 낮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함입불안이 높았으며,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함입불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의존부정, 친구 결속, 거부기대, 건강한 독립에서는 각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하위집단에 따른 분리-개별화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의식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자의식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건강한 독립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분리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자의식과 건강한 독립 간의 관계는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 간에 일관성이 있고, 더 효과적인 자기조절 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Scheier & Carver, 1977; Scheier, 1980; Turner, Gilliland & Klein, 1981; Nasby, 1989; Mullen & Suls, 1982)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공적 자의식이 높은 대학생들은 재접근 단계의 특성인 분리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los(1979)는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분화(differentiation), 실행(practice), 재접근(rapprochement), 견고화(consolidation)의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재접근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 부모의 애정을 상실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다시금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며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획득해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높은 공적자의식은 부모로부터

의 분리와 관계성의 이슈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의 분리-개별화와의 상관관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적, 정적 상관관계의 방향이 동일하게 나타나, 두 가지의 자의식은 서로 자기의식의 방향성이 다른 독립적인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은 분리-개별화에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문화로서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개인은 독립적이라기보다 타인과의 하나됨 형성을 지향하는 관계성 개인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기본 축은 개인이 아닌 우리성이다(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 1999). 반면 서구인은 개인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사회적 관계에 충실히 반영한다. 즉 서구인은 상대를 자신과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대상화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주체가 집단이 아닌 개인임을 뜻하며 상대의 자기정체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이 됨을 의미한다(조윤경, 2002) 따라서 한국인의 자의식은 명확하게 개인적 측면에서의 자기(사적 자의식)와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공적 자의식)로 구분되기 보다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은 모두 분리-개별화를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분리-개별화 갈등의 성공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건강한 독립과 같은 순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자의식의 양면적 특성은

최근 자의식의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들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연구들(Ben-Artzi & Hamburger, 2001-2002; Burnkrant & Page, 1984; Ghorbani, Watson, Krauss, Davison & Bing, 2004)에 의하면 사적 자의식은 정신 건강에 있어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내적상태인식(internal state awareness)은 적응과 관련되며 자기반성(self-reflection)은 부적응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내적상태인식(internal state awareness)은 통제가능하고 긍정적인 자기지각의 측면으로 자기지식(self-knowledge)과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에 의해 동기화되며, 신경증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향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반면 자기반성(self-reflectiveness)은 과도한 자기 초점화 경향성을 보이고, 반추적으로 자기에게 몰두하며, 신경증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외향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실제와 이상간의 불일치와 관련된다.

공적 자의식의 역기능적인 특성은 Feningstein (1979)의 연구결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Feningstein은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려는 욕구를 증가시켜 대인관계에서 외현적으로는 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하게 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자존감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김보경(2003)은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인 특성에 의해 공적 자의식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보경은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

주의 문화권에서 상호의존적 경향이 강하면서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단서에 주의 기울이는 경향이 강하여 사회불안을 경험하기 쉽다고 하였다. 반면 Check와 Buss(1981) 그리고 김현진과 한중철(2004)의 연구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상황의 느낌들을 억압한다고 보다는 사회적 단서를 이용해 자신의 대인 행동을 검색하는데 능숙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인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지만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조절하는 식의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며 분리-개별화에 대한 공적 자의식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둘째,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에 따라 군집화 한 결과 대학생 집단을 크게 4가지(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 낮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 높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또한 네 집단의 빈도를 살펴보면 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133명(39.9%)으로 네 집단 중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낮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90명(27.0%), 높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61명(18.3%), 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이 49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집단 간에 분리-개별화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로 살펴보면 공생관계, 자기도취, 분리불안, 함입불안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의존부정, 친구결속, 거부기대, 건강한 독립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집단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한 개인으로서 주체성을 정립하며 성인으로서의 자기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자의식 요인은 중요한 변별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분리-개별화 과정 중 공생기, 실행기, 재접근기에 나타나는 특성(공생관계, 자기도취, 분리불안, 함입불안)을 변별하는데 자의식 수준에 따른 본 연구의 구분은 유용하였다. 반면, 건강한 독립의 요인과 분리-개별화에 대한 심층적인 방어기제의 요인(의존부정, 친구결속, 거부기대)을 변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따른 심층적인 역동 및 방어기제와 관련되는 요소들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네 개의 집단 중 참여자의 39.9%(133명)를 구성하고 있는 군집 3(높은 사적자의식/ 높은 공적자의식 집단)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특히 주목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집단의 경우, 분리-개별화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공생관계, 자기도취, 분리불안, 함입불안이 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적자의식과 공적자의식이 둘 다 높은 집단의 대학생들이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분리-개별화 문제는 사적자의식이 높은지 공적자의식이 높은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지, 즉 자의식의 정도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높은 사적자의식과 높은 공적자의식 수준을 지닌 대학생의 경우, 심리적 분리와 개별화의 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의 건강한 적응 및 발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분리-개별화와 자의식간의 관련성은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와 부모-자녀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까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오로지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매진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경험하여야 할 진정한 자기탐색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학입학 이전까지는 심리적·사회적 독립에 대한 외적 압력이 별로 크지 않으나, 대학입학 이후에야 비로소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이에 따르는 부모-자녀간 갈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윤진, 김인경, 김길청, 1989; 장근영, 1993; 한미선, 1988).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에 속하여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모형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에서 찾아왔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며, 유교의 가족중심성으로 인해 '나'라는 개체를 '가족'이라는 집단에 귀속시킴으로써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나 감정을 고취시켜 왔었다(이수원, 1984).

이와 같은 한국의 교육체제와 가족중심의 문화적 특성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분리-개별화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사회적 갈등 요소는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리라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높은 수준의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은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학생들이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심리·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군집 1(낮은 사적자의식/ 낮은 공적자의식 집단)은 분리-개별화의 어려움을 가장 적게 느끼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분리-개별화 이슈의 해결을 의미 하는 것인지, 해결할 수 없는 심리·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자기인식의 회피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좀 더 심층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분리-개별화라는 발달 과정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동안 공생단계와 개별화 단계를 거쳐 이를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달성되며 비로소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Mahler, Pine & Bergman, 1975). 따라서 앞으로의 자의식과 분리-개별화 연구에서는 중·고·대학생과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횡단연구 혹은 발달적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를 반영하는 자기초점화 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enigstein 등 (1975)의 자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Ben-Artzi & Hamburger, 2001-2002; Burnkrant & Page, 1984; Ghorbani, Watson, Krauss, Davison & Bing, 2004; Trapnell & Campnell, 1999)들은 사적 자의식 척도 내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으며,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의 구분이 주의를 주는 방향성의 지표라기 보다는 동기

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의식 척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요인의 수준에 따라 어떠한 하위집단이 구성되며 이 하위집단들 간에 분리-개별화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하위 집단별로 어떠한 심리적 역동에 의해 자의식과 분리-개별화가 관련되어지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규명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분리-개별화라는 변인을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의 지표로 간주하고 자의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문화를 지닌 민족으로 개별적인 자기보다는 타인지향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때문에 자기실현을 이상적 인간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는 서구 문화와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조공호, 2001; 조윤경, 2002; 최상진, 윤호균, 한덕용, 조공호, 이수원, 1999).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의 개념이 우리 문화적 차원에서 심리적 적응 및 건강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김남재 (1997). 대인불안 집단의 자의식과 인정추구 요구. *학생생활연구*, 3, 29-39.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보경 (2003).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

불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사적 자의식 구인의 두 가지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69-78.  
 김현진, 한종철 (2004).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77-293.  
 문경하 (2007).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영주 (2001). 분리-개별화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주 (2008). 사적자의식과 정서 경험이 신경증적 경향이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수원 (1984). 한국인의 인간관계구조와 정. *교육논총: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95-125.  
 윤진, 김인경, 김길청 (1989). 청소년비행과 자아중심성 발달과의 관계. *형사정책*, 4, 67-96.  
 윤희정 (2004). 기혼여성의 가족분화 및 분리개별화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근영 (1993). 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휘숙 (2000). *인간발달*. 서울: 박영사.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전보영 (2005). 대학생의 애착수준, 분리개별화 및 이성간의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희정 (1996).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과정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경래 (1998). 자기초점화 주의 성향과 우울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금호 (2001). 이상적 인간형의 동·서 비교. 인간이해: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2, 1-15.
- 조아라, 김영미 (2000). 자의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MMPI 프로파일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319-330.
- 조윤경 (2002).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 척도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화진 (2004).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금호, 이수원 (1999).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최정아 (1997).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미선 (1988). 한국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정훈 (2000). 자의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지은 (2004).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와 관계적 자기인식이 대학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lison, M. D., & Sabatelli, R.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16.
- Anderson, S., & Fleming, W. (1986). Late adolescents' identity formation: Individu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dolescence*, 21, 785-796.
- Ben-Artzi, E., & Hamburger, Y. A. (2001-2002). Private self-consciousness subscales: Correlates with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self-discrepancy.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21(1), 21-31.
- Blatt, S. J., & Shichman, S. (1983). Two primary configurations of psychopathology. *Ps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Thought*, 6, 187-254.
- Blos, R. (1979). *The adolescent passag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 Blustein, D., Walbridge, M., Friedlander, M., & Palladino, D.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rewer, M. B., & Gardner, W. (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ocial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83-93.
- Burnkrant, R. E., & Page, T. J. (1984). A modification of the Fenigstein, Scheier, and Buss self-consciousnes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Assessment*, 71, 629-637.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s, S. J., Kartz, I. M., Lavalley, L. F., & Lehman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70, 141-156.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75-86.
- Frank, S. J., Pirsch, L. A., & Wright, V. C. (1990). La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9, 571-587.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 87-103.
- Gavazzi, S. M., & Sabatelli, R. M. (1990). Family system dynamics, the individuation process,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500-519.
- Ghorbani, N., Watson, P. J., Krauss, S. W., Davison, H. K., & Bing, M. N. (2004). Private self-consciousness factors: Relationships with need for cognition, locus of control, and obsessive thinking in Ir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4, 359-373.
- Grotevant, H., & Cooper, C.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 415-428.
-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 Hall, J. A. (1992). Psychological-mindedness: a conceptual model.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06, 131-140.
- Hauser, S. T., & Greene, W. M. (1991). Passages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In S. I. Greenspan & G. H. Pollock(Eds.), *The Course of life: Vol. IV Adolescence*(pp.377-405).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156-176.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pp.91-108). New York: Springer.
- Lapsley, D. K., & Edgerton, J. (2002).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484-493.
- Levine, J. B., Green, C. J., &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 123-137.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 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ahler, M., Pine, R.,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 98, 224-253.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Mullen, B., & Suls, J. (1982). "Know the self": Stressful life changes and the ameliorative effect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43-55.
- Nasby, W. (1989). Private self-consciousness, self-awareness, and the reliability of self-repor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950-957.
- Perosa, S. L., & Perosa, L. M. (1993). Relationships among Minuchin's structural family model, identity achievement, and coping sty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79-489.
- Perosa, L. M., Perosa, S. L., & Tam, H. P. (1996). The contribution of family structure and differentiation to identity development in fema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817-838.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7). Self-regulatory perseveration and the depressive self-focusing style: A self-awareness theory of reactive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02*, 122-138.
- Rice, K. G., Cole, D. A., & Lapsley, D. K.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5-202.
- Rice, K. G.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03-213.
- Rice, K. G., Cole, D. A.,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63-475.
- Scheier, M. F., & Carver, C. S. (1977). Self-focused atten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Attraction, repulsion, el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25-636.
- Scheier, M. F.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ve of person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14-521.
- Sneed, J. R., & Whitbourne, S. K. (2003). Identity Processing and Self-Consciousness in Middle and Later Adulthoo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 and social sciences, 58*, 313-319.
- Trapnell, P. D., & Campbell, J. D. (1999).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tinguishing Rumination from 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284-304.
- Turner, R. G., Scheier, M. F., Carver, C. S., & Ickes, W. (1978). Correlates of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85-289.
- Turner, R. G., Gilliland, L., & Klein, H. M. (1981). Self-consciousness, evaluation of

-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182-190.
- Woody, S. R. (1996). Effects of focus of attention on anxiety levels and social performance of individuals with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61-69.
- Woody, S. R., & Rodriguez, B. F. (2000). Self-focused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in social phobics and normal contro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473-488.
- 원 고 접 수 일 : 2008. 8. 11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0. 13  
게 재 결 정 일 : 2008. 11. 10

##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ccording to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Si-Eun Lee**

Hongi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atural groupings of 333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in terms of their levels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on the basis of the students' scores on separation-individuation. The instruments included: (a) Self-Consciousness Scales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b)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Levine, Green & Millon, 1986).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eparation-individuation. Second,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clusters: Low Private self-consciousness/ Low Public self-consciousness Group, Low Private self-consciousness/ High Public self-consciousness Group, High Private self-consciousness/ High Public self-consciousness Group, High Private self-consciousness/ Low Public self-consciousness Group.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rturance symbiosis, self-centeredness, separation anxiety, as well as engulfment anxiety within each cluster.

*Key words* : *separation-individuation, private self-consciousness, public self-consciousness*